

6과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 - 오경연 목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 받아 마땅할 비참한 운명 속에 있던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주님의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주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린이들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더욱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온 어린이들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Y Jehová Dios hizo al hombre y a su mujer túnicas de pieles, y los vistió.

오늘 공과의 주제는 제목은 가족 옷을 입혔어요 라는 14과 내용입니다.

유인물 한 페이지 되어 있는데 유인물 보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내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어쩌면 가장 쉬운 시험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 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치를 가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가족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내용, 선악과 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선악과 사건만으로 끝났다면 인류의 운명이 상당히 비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족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림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 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잘 많이 읽어서 쉽게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수고의 대가로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때에 적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의식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의식, 의 옷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옷을 제공해 준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겨울에는 필요한 뭐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이러한 것을 부모님이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혼자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입혀주는 대로 그대로 입습니다.

뭐 좀 쌀쌀할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 옷을 많이 입혀서 이동할 때 데리고 다니는 거 보셨죠?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Entonces Jehová Dios formó al hombre del polvo de la tierra, y sopló en su nariz aliento de vida, y fue el hombre un ser viviente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고 얘기 했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모호한 나무도 아니었고, 모호한 실과도 아니었으며, 모호한 죽음에 대한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명령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저 뒤에 있는 나무 조심하고 거기
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말라고 했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나무를 지칭하고 그 것에 대한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으로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는 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제 마귀는 그 하나에 집중,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 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5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Buscad a Jehová mientras puede ser hallado, llamadle en tanto que
está cercano.

(사55: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
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Deje el impío su camino, y el hombre inicuo sus pensamientos, y
vuélvase a Jehová, el cual tendrá de él misericordia, y al Dios nuestro,
el cual será amplio en perdonar.

분명히 나아오, 나아오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님.

애매한 게 없어요.

딱 한 분 믿어라.

이세상의 많은 철학들을 두루 섭렵해서 하나의 진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어라 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공자가 말한 내용들을 다 실천해보고 본인이 깨달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지금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 단순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높은 데서 뛰어 내리면서 노는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칸에서 뛰어내리는 건 너무 쉽죠?

두 칸에서 세 칸에서 뛰어내리고 막 뛰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열 칸을 훌쩍 뛰어내리는데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아빠 내가 뛰어 내릴테니까 받아주세요” 애가 겁 없이 그냥 훌쩍 뛰어 내리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저런!” 이렇게 마음이 그 놀랍다가도 아빠를 믿고서 뛰어내리는 걸 보고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았겠다.

그 애길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풍성히 부어진다면 이웃을 사랑하는건 어쩌면 쉬울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육신의 성품 때문에 내가 좀 더 갖고자 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자 하고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인데 가르쳐준 방향은 분명한데 내 생각 혹은 내 주관적인 어떤 의지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사로잡히면 또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쉬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무겁다 그랬습니까? 가법다 그랬습니까?

가벼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11:20~24, 다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Venid a mí todos los que estáis trabajados y cargados, y yo os haré descansar.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Llevad mi yugo sobre vosotros, y aprended de mí, que soy manso y humilde de corazón; y hallaréis descanso para vuestras almas;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porque mi yugo es fácil, y ligera mi carga.

자 쉽고 가벼운 것을 내게 지워 주시려고 하는데 왜 무겁게 느껴지냐면 이미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 놓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내가 지고 가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2번 마귀의 유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은 두 사이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현재적이고, 순간적이며, 물질적이고 정욕적이며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는 지나가는 잔상들을 남겨놓고,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영원한 내세에 관심을 두어야 겠죠?

이 세상은 잠깐이며 지나가는 것이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냈었을 때 즐거움과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가 이것을 개인이 어떤 유혹을 이겨냈었을 때 기쁨을 경험해 본다면 다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면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의 즐거움과 그로 말미암는 영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개인적으로 **자꾸(?14:22)** 실망하고 그러는 거죠?

이겨 내야 됩니다.

잠언 5장 3절로 5절 말씀에

(3)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Porque los labios de la mujer extraña destilan miel,
Y su paladar es más blando que el aceite;

(4)나중은 썩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Mas su fin es amargo como el ajeno,
Agudo como espada de dos filos

(5)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Sus pies descienden a la muerte;
Sus pasos conducen al Seol.

자 처음에 꿀을 떨어뜨리고 미끄러워서 쉬은 것 같습니다.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무서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달콤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15:4)

그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21)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Así que, si alguno se limpia de estas cosas, será instrumento para honra, santificado, útil al Señor, y dispuesto para toda buena obra.

(22)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Huye también de las pasiones juveniles, y sigue la justicia, la fe, el amor y la paz, con los que de corazón limpio invocan al Señor.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기에 적당한 그릇이 된다.

예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쓰려고 그럴 때 미리 씻어놔야지 다음에 쓰기가 편하잖아요?

더러워진 상태로, 싱크대에 밥 먹은 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 힘듭니다.

미리 씻어 놓은 그릇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서 맞붙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청년의 정욕과 맞붙어 싸운다.

그거는 그 숯불을 딱 밟고 있는건데 발 데이잖아요? 불을 가슴에 품으면 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건 피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왔었을 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17:01뒤에 덧붙이는 말이 잘 안들리네요)

시편 119편

이거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9)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Con qué limpiará el joven su camino? Con guardar tu palabra.

(10)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Con todo mi corazón te he buscado;

No me dejes desviarme de tus mandamientos.

(11)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En mi corazón he guardado tus dichos,

Para no pecar contra ti.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지도록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기는 게 아니지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추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과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교제가.

그래서 혼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에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똑 떨어져서 말씀을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더 안 좋은 배악하고 정말 악한 그런 누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이냐?

교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내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바른 것을 알아가고 또 그 아는 것을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다면 마귀가 시험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같이 있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깐, 연약한 사람에게 하와에게 먼저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듣긴 들었는데 어렴풋이 들었나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고 애매한 상태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확실히 들은 아담이 함께 같이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애매하게 알고 떨어져 있었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거 우리한테 교훈을 삼으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한 개인 (...) 없겠죠?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되겠습니다.(20:13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씻는 역할들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그 일일이 씻어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혼자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로 허물도 씻어주지만 우리가 잘못 된 부분들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패

(창세기 3장 5절~6절)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sino que sabe Dios que el día que comáis de él, serán abiertos vuestros ojos, y seréis como Dios, sabiendo el bien y el mal.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Y vio la mujer que el árbol era bueno para comer, y que era agradable a los ojos, y árbol codiciable para alcanzar la sabiduría; y tomó de su fruto, y comió; y dio también a su marido, el cual comió así como ella.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이 넘어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불순종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그럴 때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는 사망이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것이든지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거기면 큰 일 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거 큰 거예요? 작은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계명일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도 지킬 수 있는거잖, 왜냐면 먹을 거 많으니까.

먹을 거 많은데 굳이 그거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다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확인해보세요. 22:10)

아담의 실패는 죄인 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담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 모두가 그런 실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 지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 동일하게 내가 그 상황이 되었어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지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22:53)**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보응, 죄의 삯은 사망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굶으니까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다.

굶어 죽으면 됐죠.

도둑질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다른 사람 핑계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와가 “같이 먹읍시다” 그랬을 때 아담이 “싫어” 그랬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담이 선택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아내를 선택 한거죠.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가까운 이웃에게 전염이 됩니다.

하와의 범죄는 바로 아담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죽은 거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 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게 보이는 실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되도록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공격을 해 와서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4:9)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누룩이 약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집이 좋으면 물이 안 새겠지만 또 집이 이렇게 물새면 약한 부분 부터 새잖아요?

틈이 조금 생긴데서 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번지잖아요?

좀 놔두면 곰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 된다는 거죠.

그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quienes habiendo entendido el juicio de Dios, que los que practican tales cosas son dignos de muerte, no sólo las hacen, sino que

también se complacen con los que las practican.

자기가 자기도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가족옷

범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가 숨으라고 말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본능적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보세요.

이렇게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이러면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거의 맞기 직전까지 시치미 떼다가 나중에 실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마치 안 지은 것처럼 사람 마음이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범죄한 인간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맨날 치마 만들어 입어야 되죠?

맨날 나무 뒤에 숨어서 다녀야 되죠?

하나님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살수가 없었을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찾아오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일깨워주셨고, 수치를 가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참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

릴 옷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옷을 입히겠어요? 안 입히겠어요?

옷을 입힐 수가 없는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질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 죄에,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옷 입은 날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옷 입은 날.

그때는 달력이 없었나요?

잘모르겠네.

달력이 있을 필요도 없겠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옷 입은 날을 잊지 못 할 겁

니다.

내가 출생한날 몇 월 몇일 알 듯이, 내가 뭐 학교 졸업한 날 언제 언제 알 듯이, 내가 입사한 날 언제 언제 알 듯이, 내가 우리 부모님께 빨간 내복 사준 날 언제인지 기억하려면 기억할 것 아닙니까?

충격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었다면 기억을 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은 날 의의 겔옷 구원의 옷을 입은 그 날을 알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날을 잊겠어요?

내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 범죄를 드러내고 정말 부끄럽게 되었을 때에 정말 수치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옷을 입은 거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 53: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Todos nosotros nos descarriamos como ovejas, cada cual se apartó por su camino; mas Jehová cargó en él el pecado de todos nosotros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Nosotros le amamos a él, porque él nos amó primero.

또 뒤에도 나와 있죠?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겔옷으

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
셨음이라

En gran manera me gozaré en Jehová, mi alma se alegrará en mi
Dios; porque me vistió con vestiduras de salvación, me rodeó de
manto de justicia, como a novio me atavió, y como a novia adornada
con sus joyas.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겹옷을 내가 입고 있다.

이 옷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못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제공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수 있
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다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입을 필
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하나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 하나로.

완전 한 벌.

우리가 이 가족옷은 내가 구원받은 사건과 동일한 역시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범죄의 확인만 하고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심각한 죄의식 속에 평생을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시인한 사람에게 가족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복음은 주어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쳤는데.

회개하고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 보면 주님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 죄를 인정했었을 때 가족옷을 입혀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죄를 들춰내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혹은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분에게 덮어줄 옷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있었을 때 노아가 술 취해서 드러누웠을 때 함이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질 쳐서 옷으로 덮어 주잖아요?

옷을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만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허물들이 드러났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끄러운 허물을 말할 수 있다면 감히 지적을 한다면 덮을 수 있는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말할 겁니다.

굳이 들춰낼 필요도 없다 그냥 조용히 못 본 척하고 아니면 안 보고 셈, 야벳 처럼 안보고 그냥 옷으로 살짝 덮어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복음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가족옷을 입혀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메시지 또 그 깨달고 구원받게 되는 모습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 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도 먼저 복음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뭐 5,6,7세 아이들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말하면은 정말 모를 겁니다.

다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었다 뭐 신을 신발도 주시고 겨울 되면 털장갑 털모자도 해주고 그것은 사랑이다 또 벌거벗고 한겨울에 밖에 있으면 좋겠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제공해준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맞는 것으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입혀주는 게 부모마음이잖아요

그런 것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옷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속에 기록되어있는 내용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옷, 옷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사실이므로 이 사실

들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더욱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
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